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부산·경남지역 관광업 발전 방안

- 1.26일(목)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남본부는 조사연구보고서 「부산·경남지역 관광업 발전 방안」을 발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김용재

Tel : 051-240-3856

E-mail :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 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 붙임 >

경 남 본 부 · 부 산 본 부
공 동 연 구 자 료

부산 · 경남지역 관광업 발전 방안

2023.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본부 · 부산본부

작성자 :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구현희 과 장 (Tel : 055-260-5134)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김용재 과 장 (Tel : 051-240-3856)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이준성 조사역 (Tel : 055-260-5082)
조연자 :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권용오 팀 장 (Tel : 055-260-5081)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소인환 팀 장 (Tel : 055-240-3851)



차 례

I. 검토배경	1
II. 부산·경남지역 관광업 동향	3
III. 부산·경남지역 관광업의 주요 특징과 최근 트렌드	8
IV. 종합평가 및 발전 방향	19
<참고1> 최근 부산시 관광정책 현황	27
<참고2> 최근 경상남도 관광정책 현황	28
<참고3> 고속철도의 관광업에 대한 영향 추정	29

《요약》

I. 검토배경

- 부산·경남지역 주력산업의 성장·고용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 관광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

II. 부산·경남지역 관광업 동향

- **[현황]** 부산·경남 관광업은 지역의 인구, 경제규모, 면적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머무르고 있음
 - 부산은 주요 관광업 관련 지표가 경제규모 등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나, 경남은 경제규모에 비해 위상이 크게 낮은 편
- **[코로나19 전후 부산경남 관광업 동향]** 코로나19 발생 이전 부산의 관광업 성장세는 대체로 전국 평균을 하회한 반면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방문자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매출액은 여전히 '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III. 부산·경남지역 관광업의 주요 특징과 최근 트렌드

- **[부산·경남 관광업의 주요 특징]** 부산·경남 모두 풍부한 역사·문화·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 방문객 특성, 관광객 만족도, 관심도, 방문 목적 등에서 차이
 - 부산은 제주, 강원에 이어 여행지 관심도가 높고, 20~30대 젊은 관광객 비중이 높으며, 쇼핑·레저체험 목적의 여행이 많은 반면,
 - 경남은 50대 이상 관광객 비중이 높고 주요 제주, 강원, 전남 등 비교대상 시도에 비해 방문객의 만족도, 관심도도 낮으며, 주로 역사·문화유적 탐방 목적의 여행자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음

- **[최근 국내관광 트렌드]** 최근 국내 여행자들은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여행 목적지 선정시 이동 시간, 거리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으며, 여행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얻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IV. 종합평가 및 발전 방향

- **[부산·경남 관광업 종합평가]** 부산·경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업 위상이 낮고, 부산·경남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
 -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방문객 관심도가 높은 부산과 달리 경남은 수도권 접근성, 주요 관광지간 연결성 등이 낮아 수도권 단기 여행객 유치에 불리
 - 경남의 경우 최근의 여행 트렌드 및 여행객 특성에 맞춘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의 고유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향후 발전 방안]**
 - ① 국내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 고급숙박시설 확충, 소도시 지역사회기반 관광 상품 개발, 시니어 여행객 수요에 대응한 유치 노력이 필요
 - ② 부산·경남 특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제공
 -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산업관광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③ 주요 관광지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 관광업 발전에 필수적인 효율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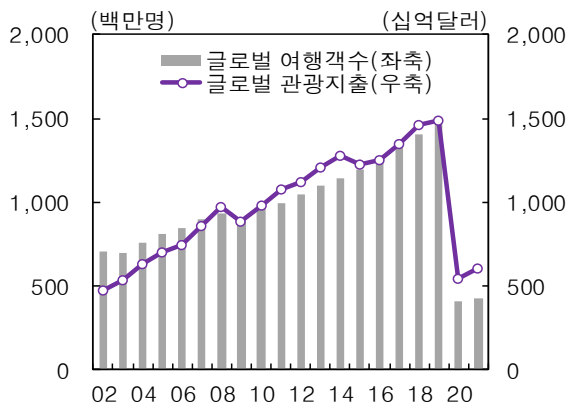
- 부산·경남은 중후장대 제조업의 성장성 제약,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재 등으로 현재의 **주력산업** 만으로는 **성장, 고용 증대에 한계**
 - 경남지역은 개도국과의 경쟁 심화, 전기자동차 확산 등으로 향후 기존 주력 산업인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 등의 수익성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해당 산업의 부침에 따라 큰 폭의 지역 경기 등락을 초래
 - 부산은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주력 제조업이 부족한 데다 서비스업도 저부가가치산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비중이 높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
- 부산·경남 지역의 성장·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의 흐름에 맞추어 대표적인 **청정 산업인 관광업을 육성할 필요**
 - 부산·경남지역 주력 제조업종은 향후 고용 증가율이 크게 둔화* 될 것으로 전망
 - * '25~'30년중 연평균 고용 증가율: 1차 금속 제조업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 등(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반면 소도시 관광 등 지역사회기반 관광이 활성화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의 지역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

□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내외 관광에 대한 이연 수요**가 향후 수년간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관광업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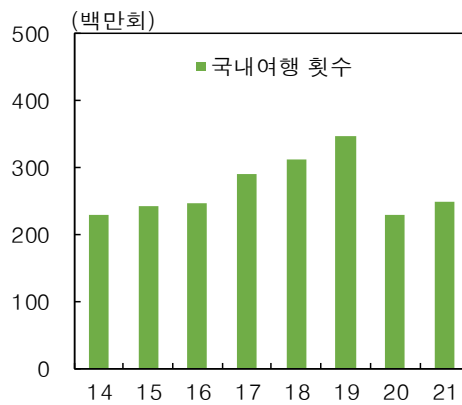
* '21년중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여행 횟수는 2억 4,800만여 회로 코로나 이전인 '19년(3억 4,600만여 회)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며, '21년중 글로벌 여행객수도 '19년의 29%에 머무는 등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

글로벌 여행객수 및 관광지출 추이



자료: UNWTO

한국 여행횟수 및 관광지출 추이



주: 1) 여행횟수는 '18년 이후와 '17년 이전의 조사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려움

자료: 국민여행조사, UNWTO

⇒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부산·경남의 지자체들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인 가운데,

본고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관광업 현황과 특징** 등을 주요 경쟁 광역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살펴보고, **관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부산·경남 지자체 관광개발계획은 <참고1> 및 <참고2> 참조

** 본고에서는 주요 광역시도 중 서울/경기/충청권 등 수도권과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거나(강원, 제주), 최근 관광업 매출 증가세가 높은 지역(전남)과 부산·경남의 관광업을 비교 분석하였음

II. 부산·경남지역 관광업 동향

부산경남 관광업은 지역의 인구, 경제규모, 면적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경남 관광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년간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미흡

1. 현 황

□ '21년 기준 부산의 관광업 매출액, 종사자 등은 면적(전국의 0.8%), 인구(6.4%), 경제규모(GRDP기준 전국의 4.6%) 등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나,

경남은 인구(전국대비 6.4%), 경제규모(전국의 5.5%) 등에 비해 관광업의 위상이 크게 낮은 편

○ [관광업 매출액] 지역별 관광업 매출액*은 부산이 전국 매출액의 5.6%(17개 시도 중 5위)를, 경남은 3.7%(7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

* 「관광진흥법」 상 7개 업종#의 연간 총 매출액(자료: 2021 관광산업조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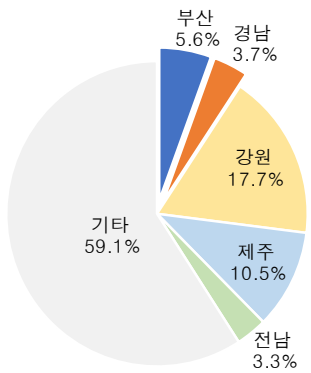
**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17.7%, 2위), 제주(10.5%, 3위) 등이 전국 관광 매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남(3.3%)은 경남과 비슷한 수준

— 그러나 GRDP대비 관광업 매출액으로는 부산(0.7%)은 전남과 함께 전국 평균(0.5%)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경남(0.4%)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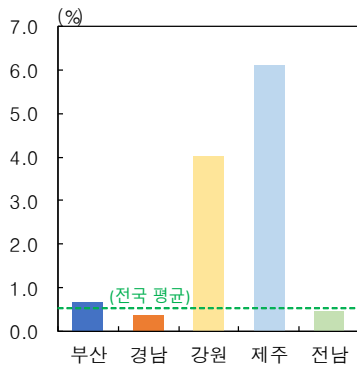
○ [관광업 종사자] 부산 지역 전체 취업자 중 관광업 종사자 비중은 0.7%로 전국 평균(0.7%)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경남(0.5%)의 경우 전국 평균을 소폭 하회

— 이는 관광업 중심지인 제주(3.5%), 강원(2.3%)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남(0.7%)의 경우 부산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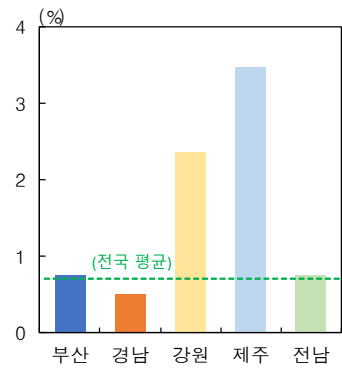
관광사업체 매출액 비중¹⁾



관광업 매출액/GRDP



관광업종사자/전체 취업자



주: 1) '21년중 전국 관광사업체 매출액의 각 시·도별 비중
 자료: 관광산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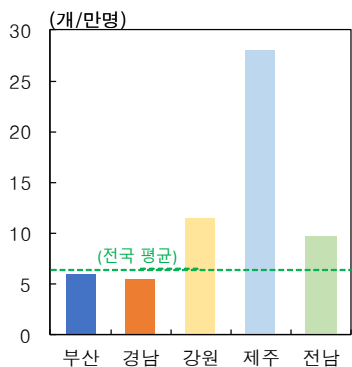
□ 부산·경남의 인구대비 관광업체 수와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지역 내 관광사업체의 총 이용객 수 기준으로도 비교대상 시·도에 뒤처지는 상황

○ [관광업체] 인구 1만명당 관광업 업체수는 부산(5.9개)과 경남(5.4개) 모두 전국 평균(6.5개)을 하회하여 제주(28.0개), 강원(11.5개)은 물론 전남(9.7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업체당 매출액] 강원(10.7억원), 제주(5.9억원) 등이 전국 평균(3.1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부산(3.0억원)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경남(2.2억원), 전남(2.0억원)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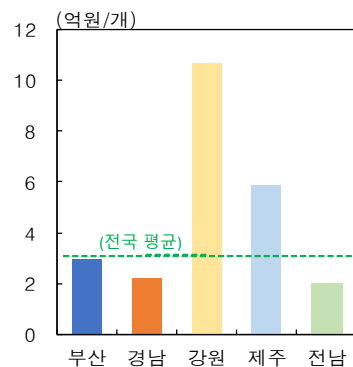
* 업체당 매출액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20년중 큰 폭 감소(8.0억원 → 2.6억원)하였으며, '21년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

관광사업체 수¹⁾(인구 1만명당)



주: 1) '21년 기준

업체당 매출액¹⁾



자료: 관광산업조사,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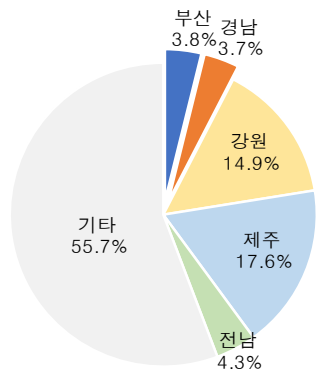
- [이용객 수] 국내 관광사업체의 전체 이용객 중 부산·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와 3.7%로, 제주(17.6%), 강원(14.9%)은 물론 전남(4.3%)에도 뒤처지는 수준

* 『2021 관광산업조사』 대상 관광사업체(「관광진흥법」 상 7개 업종)의 연간 총 이용객 및 참가자 수 기준

- 다만 이용객당 매출액*의 경우 부산(6.1만원), 강원(5.0만원)은 전국 평균(4.2만원)을 상회하고 경남(4.2만원)은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으며 제주(2.5만원), 전남(3.3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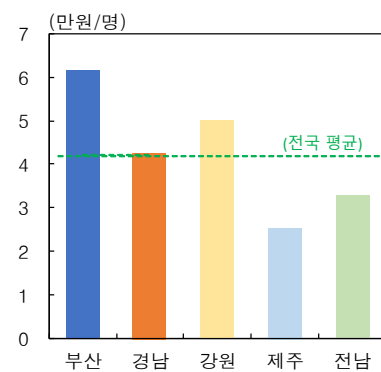
* '21년중 17개 시도별 관광업 매출액을 방문자수로 나눈 값

지역별 이용객 및 참가자 수¹⁾



주: 1) '21년 기준

이용객·참가자 1인당 매출액¹⁾



자료: 관광산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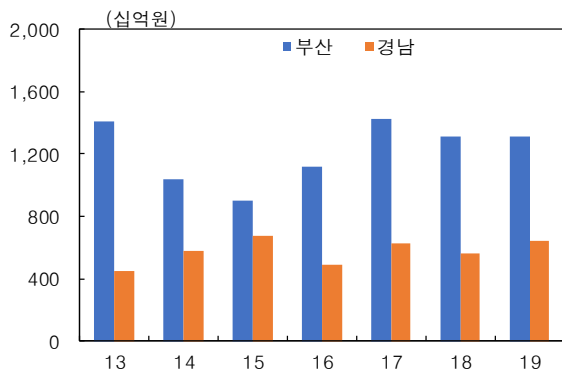
2. 코로나19 전후 부산·경남 관광업 동향

- **코로나19 발생 이전 부산의 관광업 성장세**는 대체로 **전국 평균을 하회**한 반면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코로나19 이전 6년간('13~'19년중) 부산의 관광업 매출액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연평균 1.2% 감소하였으며, 방문자수 증가율도 0.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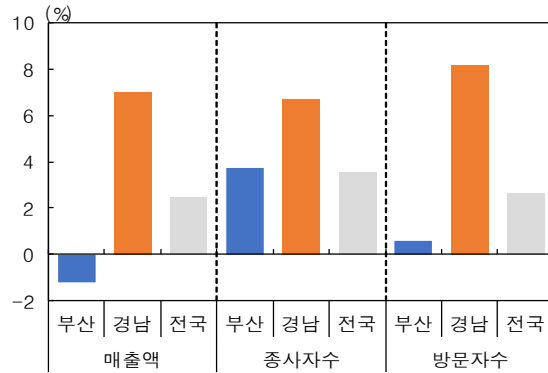
- 반면 경남은 연평균 관광업 매출액 증가율(7.0%), 관광업 종사자 증가율(6.7%), 방문자 증가율(8.2%)이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부산·경남 관광사업체 매출액



주: 1) '13~'19년중 평균 증가율
자료: 관광산업조사

부산·경남 관광산업 관련 지표 증감¹⁾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1~'22년중 부산·경남지역 관광업은 방문자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매출액은 여전히 '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관광산업조사』의 '22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방문자 수는 한국관광공사가 KT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자료를, 매출액은 BC·신한카드 매출액을 이용하여 추정한 관광지출액을 이용하여 분석

○ '20년중 부산·경남지역 방문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1.6%)에 그쳤으며, '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2년 방문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19년 대비 +12.3%)

* 한국관광공사가 KT의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상생활권 외의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수를 집계하여 추정

— 부산의 경우 '20년중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방문자가 감소하였으나 '21년 이후 증가폭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경남은 '20년중에도 방문객이 순증

* 방문객 증가율(% , 전년대비)

	2019	2020	2021	2022
전국	+1.7	-2.7	+5.3	+ 7.6
부산	+2.0	-3.7	+1.5	+12.4
경남	+1.7	+0.4	+2.6	+ 7.9

○ 반면 관광지출액*의 경우 '20~'21년중 연속으로 감소(각각 전년대비 -19.5%, -2.7%)한 이후 '22년중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19년 수준을 하회(-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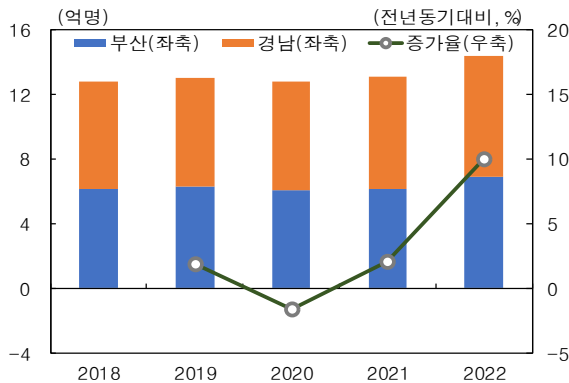
* 한국관광공사가 비씨카드·신한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관련 업종(숙박·여행·운송·쇼핑·여가서비스·식음료) 지출액을 집계하여 추정

— 반면 전국 기준으로는 '21년부터 관광지출액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부산·경남지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 관광지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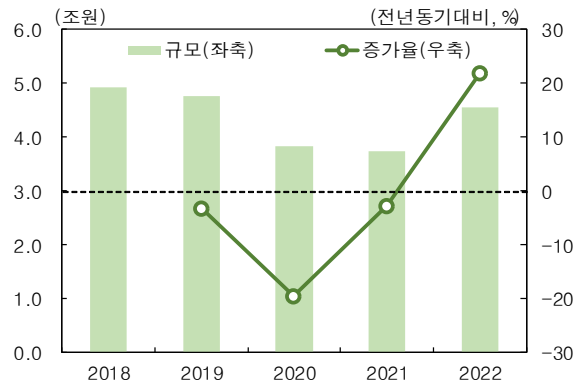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전국	-0.9	-20.0	+0.7	+23.1
부산	-3.4	-22.5	-3.2	+24.7
경남	-2.6	-13.2	-1.8	+16.7

부산·경남 관광지 방문객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부산·경남 관광지출액



자료: 한국관광공사

III. 부산·경남지역 관광업의 주요 특징과 최근 트렌드

1. 부산·경남 관광업의 주요 특징

부산·경남 모두 풍부한 역사·문화·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 방문객 특성, 관광객 만족도, 관심도, 방문 목적 등에서 차이

- ▲ 부산은 제주, 강원에 이어 여행지 관심도가 높고, 20-30대 관광객 비중이 높으며, 쇼핑·레저체험 목적의 여행이 많은 반면,
- ▲ 경남은 50대 이상 관광객 비중이 높고 주요 비교대상 시도에 비해 만족도, 관심도도 낮으며 역사문화유적 탐방 목적의 여행이 많은 상황

[관광 자원]

□ (관광지·관광단지) 부산·경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다수**의 지정 관광지*를 보유

*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 등의 개발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

○ 경남의 지정 관광지*는 '22년 6월말 기준 21개소로 전국(227개소)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도 해운대, 태종대 등 5개의 지정 관광지를 보유

* 강원(41개소)·경북(38개소)·전남(38개소)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4위

관광지 지정 현황¹⁾

	지정개소	주요 관광지명
부산	5	태종대, 해운대
경남	21	부곡온천, 거가대교, 마금산온천 등
제주	14	용머리, 협지해안 등
강원	41	춘천호반, 주문진 등
전남	28	곡성 도림사, 지리산온천, 담양호, 우수영 등
전국	2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단지 지정 현황¹⁾

	지정개소	주요 관광단지명
부산	1	오시리아
경남	3	구산해양, 거제 남부, 웅동복합레저
제주	8	설악 한화리조트, 용평 등
강원	14	성산포 해양, 중문 등
전남	6	여수 화양, 진도 대명리조트 등
전국	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역사, 문화 자원) 부산·경남은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사찰 등을 보유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

○ 부산, 경남이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는 420개로 전국의 약 10%를 차지

○ 특히 합천 해인사(장경판전)와 양산 통도사(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창녕 우포늪, 김해·함안·합천·고성의 가야고분군, 고성의 공룡화석지 등이 잠재목록에 포함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부산	경남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전남	전국
국보	6	14	168	13	12	-	22	350
보물	54	184	731	180	85	8	195	2,293
사적	6	55	69	69	20	7	45	521
명승	2	13	3	4	26	9	26	127
천연기념물	7	45	11	20	45	49	61	470
국가 무형문화재	5	15	32	10	4	5	14	153
국가 민속문화재	2	12	41	24	11	9	38	306
국가지정문화재	82	338	1,055	320	203	87	401	4,220
시도 유형문화재	208	900	465	321	177	37	243	3,943
시도 무형문화재	25	41	52	68	32	23	53	585
시도 기념물	51	267	40	187	80	128	194	1,744
시도 민속문화재	19	21	35	14	4	82	42	475
시도지정문화재	303	1,229	592	590	293	270	532	6,747

자료: 문화재청

□ (해양 관광자원) 경남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해안선 (2,478km), 다수의 섬(552개) 등 활용 가능한 **해양 관광자원이 풍부***

* 전남(해안선 6,873km, 도서 2,014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 해수욕장의 경우 경남에 27개소가 위치하여 강원(94개), 전남(58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부산에는 7개소가 위치

— 부산은 소수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전국 방문객 순위 최상위권*을 기록함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해수욕장 방문객(9.9백만명)을 기록**

* '21년중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 순위: 1위 해운대, 4위 송정, 5위 광안리, 6위 다대포, 7위 송도 등(자료: 해양수산부)

** '21년중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990.1만명으로 강원도(502.4만명), 충청남도(458.1만명) 등을 크게 상회

— 다만 경남의 경우 다수의 해수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64.2만명에 그침

지역별 도서 개수		해수욕장 현황			
	개수		해수욕장(개)	방문객(만명)	평균방문객
부산	48	부산	7	990.1	141.4
경남	562	경남	27	64.2	2.4
전남	2,022	전남	59	65.0	1.1
제주	66	제주	12	94.5	7.9
강원	34	강원	94	502.4	5.3
전국	3,348	전국	278	2,273.0	81.6

주: 1) 2021년중

자료: 해양수산부

○ 특히 남해안의 경우 크고 작은 섬들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해일 등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평소에도 물결이 잔잔해 해양레저 산업 발달에 유리

○ 경남은 다수의 어촌체험휴양마을*(25개, 전남에 이어 2위), 국가중요 어업유산**(4개, 전남에 이어 2위) 등을 보유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도시민들에게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로, 해양수산부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08년부터 적극 육성

** 우수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다양한 어촌자원을 계승하고 보전함으로써 어촌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개소
부산	3
경남	25
전남	29
제주	6
강원	11
전국	118

자료: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현황

	개수	주요 대상지역
부산	-	
경남	4	남해, 하동, 통영, 거제
전남	6	보성, 신안, 완도 등
제주	1	제주
경북	1	울진, 울릉
전북	1	부안
전국	13	

자료: 해양수산부

- (국립공원)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총 4개소**(지리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이며 이는 17개 시·도 중 **경북(7개소)·전남(6개소)**에 이어 3번째
- (숙박시설) '21년 기준 부산·경남지역에는 호텔 344개(부산 194개 및 경남 150개) 및 휴양콘도미니엄 27개(부산 6개 및 경남 21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총 객실수는 26,434실 수준
 - 다만 4성급 이상 고급호텔의 경우 부산은 9개(전국대비 5.6%), 경남은 6개(전국대비 3.8%)로 **고급 숙박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

숙박시설 현황(2021년말)

	부산	경남	강원	제주	전남	전국
5성급 호텔	6	2	4	14	1	61
4성급 호텔	3	4	10	12	4	99
4성급 이상	9	6	14	26	5	160
(전국 호텔수대비 비중)	(0.7%)	(0.5%)	(1.1%)	(2.0%)	(0.4%)	(12.4%)
전체 호텔	194	150	104	362	330	2,130
전체 숙박시설	200	171	182	422	342	2,3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방문객 특성]

□ (거주지) 부산, 경남의 경우 각각 **인접 지역**인 경남, 부산으로부터의 **방문객 의존도가 높음**(자료: 관광데이터랩)

- 부산은 방문객의 37.5%가 경남으로부터, 경남은 42.3%가 부산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수도권 방문객의 비중은 각각 27.4%, 18.8%에 불과
- 관광업에 특화된 제주(55.8%),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은 강원(77.2%) 등은 수도권 유입 비중이 높으나, 전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타 광역자치체의 경우 인접 지역 의존도가 높은 편

□ (체류기간) 비교 대상 5개 지역의 방문객 체류 기간은 제주, 강원, 부산, 경남, 전남 순(자료: 관광데이터랩)

- '22년 **경남지역** 숙박 방문자(23.1%), **2박 이상 숙박 방문자** 비율(6.9%)이 전남과 함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산은 동 비율이 각각 25.6%, 7.9%로 강원을 소폭 하회

부산·경남 방문자 거주지 비중¹⁾

(%)

		부산	경남	
방 문 자 거 주 지	경남	37.5	부산	42.3
	서울	13.2	경기	9.7
	경기	12.9	대구	9.4
	울산	8.7	서울	7.6
	경북	6.6	경북	6.9
	기타	21.1	기타	24.0

주: 1) '22년중
자료: 한국관광공사

주요 지역 방문자 숙박 비율¹⁾

(%)

	당일	숙박	1박	2박이상
부산	74.4	25.6	17.7	7.9
경남	77.0	23.1	16.2	6.9
강원	71.8	28.1	19.7	8.4
제주	67.9	32.1	17.1	15.0
전남	78.2	21.9	15.2	6.7

주: 1) '22년중
자료: 한국관광공사

□ (연령대) 부산의 경우 방문객 중 **젊은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의 경우 **중년층 이상** 비율이 높은 편(자료: 관광데이터랩)

○ '22년중 방문자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부산의 경우 여타 비교대상 지역에 비해 10~20대의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은 전남과 유사하게 50대 이상 중년층의 비율이 높음

지역별 방문자 연령대별 비중

	부산	경남	강원	제주	전남
70세 이상	6.2	6.2	6.0	4.2	7.6
60 ~ 69세	11.5	14.1	13.5	11.6	15.1
50 ~ 59세	14.8	18.8	17.9	17.5	21.1
40 ~ 49세	15.1	16.5	17.3	17.4	16.5
30 ~ 39세	17.9	16.9	16.7	19.7	14.6
20 ~ 29세	25.7	19.1	19.8	21.0	17.1
10 ~ 19세	7.0	6.3	6.9	6.8	6.2
0 ~ 9세	1.7	2.0	1.9	1.8	1.8

자료: 한국관광공사

□ (방문 목적) 국내 관광객들은 여행 목적지 선택시 대체로 자연풍경, 음식, 접근성의 순서로 중요하게 고려*(자료: 한국관광공사)

*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한 결과이며, 1순위 응답만을 고려할 경우 접근성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응답. 단, 제주도 방문객의 경우 접근성보다 숙박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응답

○ 경남의 경우 '음식'을 이유로 방문했다는 응답이 비교 대상 시도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역사·문화유적 탐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부산의 경우 '접근성', '레저 체험' 등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기록

최근 여행 목적지 선택 이유

(%)

	부산	경남	강원	제주	전남	전체
자연풍광 감상	51.3	60.3	76.3	75.5	63.8	56.2
음식	62.5	51.0	60.0	67.7	61.0	53.3
접근성	54.6	52.3	40.9	17.2	43.3	51.2
숙소	28.3	26.5	35.4	42.7	19.1	26.5
비용	23.0	20.5	15.4	13.0	17.7	21.2
역사문화유적 탐방	7.2	17.9	10.8	14.6	23.4	15.9
레저체험	16.4	11.9	13.8	20.3	10.6	13.6
테마파크·놀이시설	9.9	11.9	8.0	13.5	16.3	11.5
전염병·안전 문제	5.3	11.9	11.1	14.1	11.3	11.3
전시·문화·예술체험	11.8	9.3	4.9	11.5	10.6	11.2
기 타	5.3	4.0	1.5	1.6	5.0	3.6

주: 최근 여행 목적지를 선택한 이유(중복 응답 허용)

자료: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관광트렌드 분석」

○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산** 방문자들은 **쇼핑**을, **경남** 방문자들은 **문화관광, 역사관광지**를 목적지로 검색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2년중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적지를 관광 유형 별로 분류하여 비중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 방문자 수와는 차이가 있음(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관심도 및 만족도]

□ (관심도) **부산**은 제주, 강원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관심도**를 받고 있으나 **경남**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

2021년중 국내 여행지 관심도¹⁾

(%)

제주	강원	부산	전남 광주	서울	경기 인천	전북	경남 울산	경북 대구	충남 대전	충북
63.6	54.6	44.0	29.2	26.0	25.9	25.8	25.7	21.6	21.5	20.6

주: 1)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늘어났다는 응답의 비중

자료: 컨슈머인사이트, 여행행태 및 계획 주례조사(2021)

- (여행지 만족도) 관광여행의 전반적 만족도 및 재방문 의향은 부산, 경남 모두 주요 비교대상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전국 평균을 소폭 하회

관광여행 만족도¹⁾

	부산	경남	강원	제주	전남	전국
전반적 만족도	80.5	79.4	81.1	83.8	82.9	80.0

주: 1) 100점 만점
 자료: 2021년 국민여행조사

2. 최근 국내관광 트렌드

최근 국내 여행자들은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여행 목적지 선정 시 **이동 시간, 거리를** 대해 점점 더 중시하고 있으며, 여행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얻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고급 숙박시설 수요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일부 이동한 가운데 안전, 위생 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경향

○ 이에 따라 여행비 항목별 지출비 중 숙박비 비중, 국내여행시 숙박시설로 호텔을 이용하는 비중 등이 크게 늘어남*(권슈머인사이트, 2022)

* 여행경비 중 숙박비 비중: 2017년 27% → 2021년 30%
국내 여행시 호텔 숙박 비중: 2017년 17.2% → 2021년 29.7%
(4-5성급 호텔 숙박 비중): 2020년 11.8% → 2021년 16.4%

○ 특히 20, 30대 젊은층이 고령층에 비해 호텔 숙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21년중 국내여행객의 호텔 숙박 비중은 36.4%로 나타난 가운데 20대 이하(41.2%), 30대(39.9%)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한국관광공사, 2021)

□ 재택·유연근무 증가*로 여행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소위 **워케이션** (work & vacation) 확대 전망**, **독특한 숙박 경험**에 대한 수요 등도 고급 숙소에 대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1년중 재택근무자는 114만명으로 '20년(50만명)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고용노동부)

** 통계청이 실시한 '21년 사회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73%가 향후 재택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에어비앤비가 실시한 설문조사(1,000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61%가 워케이션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응답

- 워케이션 확대는 향후 숙박시설 선택시 자연환경, 편의시설은 물론 업무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이동시간·거리의 중요성 증가]

□ 최근 관광객들은 여행지 선택에 있어 이동 거리, 시간 등 **목적지까지의 교통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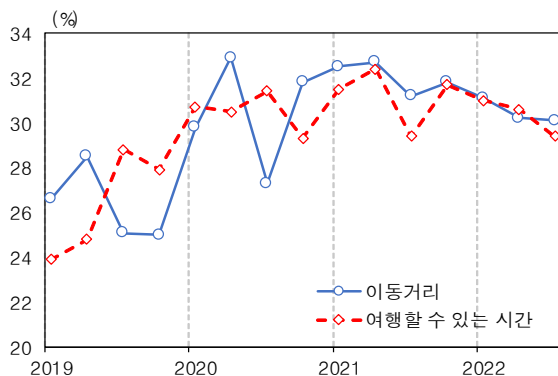
-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여행지 선택의 이유로 이동시간, 이동거리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행지 선택의 이유로 이동거리를 선택한 응답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자료: 컨슈머인사이트, 「여행행태 및 계획 주례 조사」 및 국민여행조사, 2022년 3/4분기)

- 이러한 경향은 워케이션, 한달살기 등 장기체류 여행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주말, 연차 등을 활용하여 근거리를 자주 방문하는 단기 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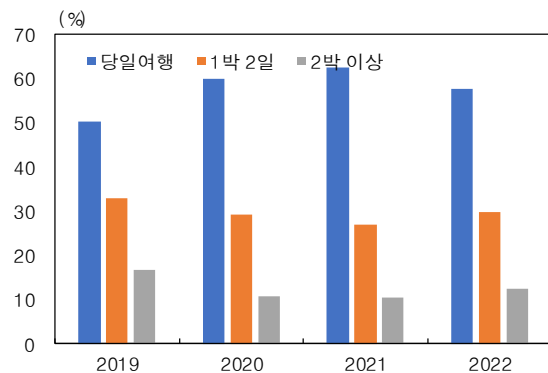
* 코로나 이전에 비해 숙박 여행의 비중은 감소하고, 당일 여행의 비중이 증가(국민여행조사, 2022.3/4분기)

관광 여행지 선택 기준



자료: 국민여행조사(2022.3/4분기)

관광여행 일정



[독특한 경험에 대한 욕구 증대]

□ 최근 관광은 기존의 랜드마크 방문 중심의 관광보다는 여행 중에 **기억할만한 경험**(MTE: memorable tourism experience),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경험**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

○ 최근 힐링 여행*, 스테이케이션**, 파인 스테이*** 등 새로운 형태의 여행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캠핑, 차박 등의 독특한 방식의 여행 수요가 증가

* 명상, 요가, 숲 체험 등 쉼거리가 중심이 되는 여행

** 호캉스 등 근거리에서 보내는 휴가

*** 한옥스테이/웰니스리조트 등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

○ SNS 이용이 확대되면서 고급 호텔·리조트와 더불어 '사진찍기 좋은 숙소', '특색있는 숙소'를 경험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수요도 증가

□ 기존 유명 관광지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였으며 **현지인처럼 여행**하며 **천천히 방문지를 즐기는 관광 유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여행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일부 소도시의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야간관광, 한달살이 등 현지인처럼 여행하거나 대도시 근교 여행·한적한 소도시 여행·웰니스 투어 등 여유를 즐기는 관광 유형이 등장**

* '20년중 숙박업 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증가지역: 경남 거창군(841%), 전남 함평군(387%), 경남 함안군(244%), 경북 봉화군(198%), 경기 연천군(177%) 등 (한국관광공사, 2020)

** 한국관광공사(2022)는 빅데이터, 여행 트렌드 등을 기반으로 현지인처럼 여행하기, 천천히 여행하기, 가까운 사람과 여행하기, 레저활동 즐기기를 관광유형 카테고리 도출

IV. 종합평가 및 발전 방향

1. 부산·경남 관광업 종합평가

- 부산·경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규모, 면적 등에 비추어 **관광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부산과 경남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

-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는 **부산이 높은 접근성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상당한 매력을 보유한 반면, **경남은 낮은 접근성** 등으로 관광자원의 매력이 충분히 소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산의 경우 고급 호텔이나 유명 해수욕장, 쇼핑·식음료 등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젊은층의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고 도시여행·쇼핑·공연축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
 - 반면 경남은 풍부한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및 공항과 주요 관광지간의 접근성이 낮아 수도권 관광객의 단기 여행에 불리한 측면

- 한편 부산·경남지역은 인접지역으로부터의 방문객 의존도가 높고 체류기간이 짧아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 부산은 항공(김해공항) 및 철도(KTX)를 통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
 - 반면 경남의 경우에는 고속철도 및 항공이 주로 동부 경남과 일부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주요 거점과 관광지 간 교통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 따라서 최근의 여행 트렌드 및 여행객 특성에 맞춘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경남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2. 향후 발전 방안

① 국내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고급 숙박시설 확충]

□ 위케이션, 파인스테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최근의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여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

- 부산의 경우 다수의 고급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숙박시설 규모도 커** 이를 기반으로 MICE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제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 등을 진행중

* '21년말 기준 5성급 호텔이 6곳으로 서울(23), 제주(14)에 이어 세 번째

** '21년말 기준 200개로 서울(464), 제주(422), 전남(342)에 이어 네 번째

- 그러나 경남의 경우 숙박 시설이 전국대비 부족한 수준(전국대비 숙박시설 개수 7.2%, 호텔 개수 6.6%)이며 4성급 이상 호텔 비율(7%)이 전국 평균(12%)을 크게 하회

— 특히 부곡온천(창녕군), 마금산온천(창원시) 등 풍부한 온천* 자원을 보유했으나 시설 노후화, 온천관광 수요 감소, 연계 관광상품 부족 등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

* 경남은 경북(100개소), 강원(54개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3개소의 온천지구(구역)를 보유(자료: 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2022)

□ 테르메덴(이천온천), 소노캄 텔피노(고성군 원암온천), 덕구온천리조트(경북 울진군) 등이 **온천과 고급 리조트, 워터파크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

[소도시 지역사회기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살리기]

□ 대도시, 랜드마크 등 기존 관광지가 아니라 오래된 마을 골목, 시골 장터 등 독특한 일상의 공간을 현지인처럼 체험하는 **지역사회기반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

○ 부산·경남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을 간직한 시골 장터, 골목길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이 보유한 도서 지역들의 특색 있는 생활·문화는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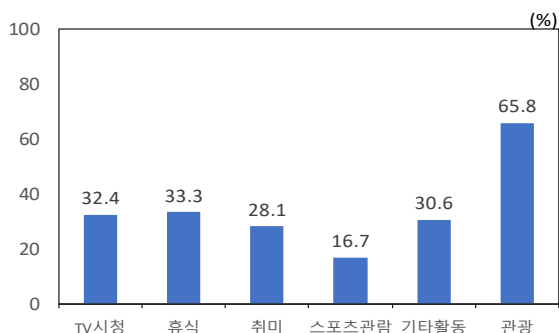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 한국인들의 일본 소도시 관광이 급증했던 것은 호젓하고 이국적인 여행지이면서도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숙박, 미식, 카페, 산책길, 편리한 교통 등)가 갖추어졌기 때문

□ 부산 감천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이 대표적이며, 유사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경우 급증한 **일본 소도시 여행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니어 여행객의 관광 수요에 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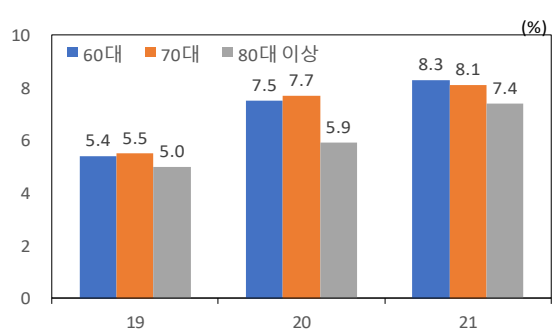
□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층 여행객이 증가하고, 관광업 지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시니어 여행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

65세 이상 인구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



주: 1) 중복 응답
자료: 통계청

연령대별 여가 서비스업 소비 비중



자료: 한국관광공사

- 특히 경남의 경우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적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를 풍부한 온천 자원을 이용한 치유, 의료 관광과 연계할 경우 시니어 관광 수요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연령대별 국내 여행시 주요 활동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자연경관 감상	44.2	51.3	65.2	73.0
식도락 관광	51.4	59.0	59.1	64.6
휴양·휴식	39.9	38.1	42.2	40.4
도시여행	23.7	21.3	21.7	23.6
역사유적지 유물관	14.6	16.8	18.7	22.5
문화예술탐방	16.8	15.5	15.3	14.8
테마파크 놀이시설	14.4	15.7	15.5	7.7
쇼핑	17.4	11.4	10.7	11.6
스포츠레저	10.2	12.3	8.4	4.8
캠핑	12.6	11.2	6.2	3.8
공연 축제	10.0	8.5	5.6	4.1
웰니스	10.0	7.4	4.1	4.1
유흥 오락	10.9	8.1	3.6	3.6
기타	0.4	0.4	1.1	2.1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② 부산·경남 특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제공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산업관광 개발]

- 부산·경남이 보유한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한 산업관광***은 다른 지역에서 얻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산업관광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업자원, 생산현장 및 제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행태로서 대체로 런던 박람회(1851년) 견학을 시작으로 보고 있음(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 부산·경남에도 대기업 중심의 홍보관 투어 프로그램,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산업관광코스 등이 있으나 기업홍보·단체 견학 등 특정인을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 일반 관광객들의 관심·접근성이 높지 않은 실정

해외 산업관광 사례

[독일 아우토슈타트]

- 독일의 자동차 도시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르쉐,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 자동차 브랜드의 전시관(7개), 박물관, 호텔, 레스토랑, 기념품점 등을 갖춘 복합 자동차 산업관광 단지
- 일반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전시, 첨단기술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
- 방문객은 자동차 구매자,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관광객 등으로 연간 약 200만명 수준

[일본 고베 해양박물관]

- 고베항 개항 120 주년 기념으로 개관하였으며, 고베 포토 타워와 함께 고베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음
- 야외에는 과거부터 사용된 다양한 배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박물관 내에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역사,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술 등을 소개하고,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부산·경남은 산업화의 동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조선업, 항만·물류 산업이나, 최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다수 보유

—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조선업·항만 물류산업 등의 인프라, 관련 종사자들의 삶과 문화, 산업화와 관련된 역사적 스토리 등을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항공·우주·방위산업 관련 최신 기술을 전시하는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경험은 여타 시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경남·부산 여행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산업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큼

[해양관광자원 활용]

□ 경남의 경우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를 **제고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예를 들어 경남지역에는 27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나 '22년중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은 부산의 6.5% 수준인 64만명에 불과

○ 특히 정부도 부울경 광역관광권역을 '산업기반 해양레저 문화 관광지대'로 설정*하고 한국 관광 휴양벨트(부산·경남·광주·울산·전남) 구축,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가고 싶은 한국 관광 섬'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21년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시도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방향성 제시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공모로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숙박시설 확충, 마을 경관 개선 등 지원 예정

○ 부산·경남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리나 기반 조성, 요트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체험 상품** 등을 발굴할 필요

* 부산은 해상 관광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며 경상남도도 해양레저산업 장기 비전 마련을 위한 「해양레저 육성 종합계획」 수립 예정

** 슬도수산물체험장(울산 동구)은 바지선 형태로 해조류 관찰, 스노클링, 낚시체험 등을 제공하여 화물선을 체험형 바다자원으로 활용한 바 있음

③ 주요 관광지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는 **관광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자동차 중심의 여행으로 인한 관광지 교통 혼잡 문제 해소,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 유도에도 기여

- 특히 최근의 여행 트렌드는 관광 목적지 선정시 이동거리, 이동 시간 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통망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 부산의 경우 고속철도 및 항공을 통한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요 관광지간 신속한 단거리 이동 가능성 등을 통해 다수의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
- 반면 경남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데다* 고속철도역, 공항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간의 대중교통망도 부실하여 이동 시간을 중시하는 단기 여행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TX 노선의 경우 동대구 이남은 고속철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김해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공항과 주요 관광지간의 연계 교통망이 부족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부전마산선**, **경전선** 철도 개통, **동대구-창원 구간 고속철도화** 등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자료: 경상남도청

부전마산선 노선도



자료: 경상남도청

-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경남 주요 관광지인 통영, 거제와 수도권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해당 지역 방문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김천,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서울-진주 간 이동시간을 기존 3시간대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하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5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단축할 예정

— 과거 전라선·강릉선 고속철도 개통 시 해당 지역 관광업 종사자 및 방문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참고3> 참조)

○ 또한 부전마산선* 개통 등을 통해 부산 경남권 광역교통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부산-창원, 창원-진주-거제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통해 부산·경남지역 주요 관광지가 대중교통으로 연결

* 창원, 김해, 부산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창원-부산간 이동시간을 기존 1시간 33분에서 38분으로 단축할 예정

— 특히 전라선·강릉선 고속철도의 사례에서 강릉선에 비하여 관광지와 접근성에서 유리한 전라선만 관광업 고용증가 효과가 유의했던 분석 결과는 교통거점과 관광지의 연결 편의성의 중요성을 시사

**전라선·강릉선 KTX 정차역-
주요 관광지¹⁾ 소요시간(분)**

		대중교통	차량
전라선	전주역 → 한옥마을	26	12
	여수역 → 오동도	12	5
	순천역 → 순천만국가정원	18	7
강릉선	강릉역 → 경포해변	25	9
	진부역 → 대관령양떼목장	160	23
	서원주역 → 오크밸리	40	22

주: 1) 한국관광공사 지역별 관광지 검색건수 기준('18~'21년) 전라선 KTX, 강릉선 KTX 정차지역별 검색 상위 관광지

교통거점 도착시간(분)¹⁾

		버스터미널	기차역
주요 관광지 ²⁾	부산	36.8	23.9
	경남	69.0	90.4
전지역	부산	37.5	23.3
	경남	65.8	84.9
	전국	50.3	58.6
	서울	30.1	23.0
	강원	59.5	75.8

주: 1) 시도내 읍면동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일평균 접근시간의 지역별 평균

2) 주요 관광지 소재 읍면동 도착시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참고1>

최근 부산시 관광정책 현황

□ 부산시는 올해에도 국내외 여행수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의 마이스(MICE)산업**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부산시는 지난 '20.1월 정부의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에 따라 국내 유일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4년까지 국비 500억원 및 시예산 1,000억원을 투입하여 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회의장, 전시장 등의 전문시설을 기반으로 이들 행사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 국제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르떼뮤지엄*(’23.7월 개관 예정) 등의 관광 자원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 생태계 조성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

* 아르떼뮤지엄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으로 '20년 제주를 시작으로 '21년에는 여수, 강릉에 개관되었으며, 제주 및 강릉 전시관의 누적입장객이 각각 200만명,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

○ 또한 벅스코(BEXCO) 제3전시장, 서부산 컨벤션센터 등 MICE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상 관광교통체계(수륙양용 투어버스, 해양택시 등) 도입, 수영만요트 경기장 재개발 등을 통해 해양레저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발굴도 지속

2023년 부산시 관광산업 주요 정책 현황

정책목표	주요내용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마이스특화 도시 부산 육성 해양레저관광도시 구현 글로벌 마케팅 강화	글로벌 지적재산권 활용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등 마이스 산업 미래 성장기반 조성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신개념 해상 관광교통체계 도입 등 엑스포 개최 홍보 연계 관광 마케팅 활동 전개 등

자료: 부산광역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

□ 한편 부산시는 최근 경남, 전남지역과 함께 남해안 권역의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개발 계획을 발표

○ 3개 지자체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관광 브랜드 및 상품 공동개발, 인프라 확충,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협약에 포함('22.12.28일)

○ 정부도 3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후 남해안권을 마리나 시설·크루즈와 연계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23.1.4일)

최근 경상남도 관광정책 현황

□ 코로나19 이후 '현재', '나'에 집중하는 관광트렌드가 형성되는 등 달라진 정책환경에 따라 관광생태계 회복·혁신을 통한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

○ 지역민 주도 지역관광 추진체계 운영으로 관광산업 위기 극복,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민간 중심 관광 수용태세 서비스 개선,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및 우수 관광기업 지원 관광, 관광 인플루언서 등 지역 관광인력 양성

○ 친환경 공공숙박시설, 자연친화적 오토캠핑장,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며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개발,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하는 관광기반 지속 확보

* 5만년전 직경 200m의 운석이 한반도에 떨어졌던 합천 운석충돌구는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공식적인 운석충돌구로 인정되었으며 이 지역 일대에 운석테마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22.4월 발표)

○ 대단위 행사가 아닌 지역 고유문화와 특색있는 소규모 회의를 확대하며 주력산업 및 해양레저산업 연계 마이스산업 육성, 지역민이 주축이 되는 지역축제 구현 등으로 마이스·축제 연계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이와 관련하여 2023년중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창원), 차(茶)엑스포(하동), 전통의약 엑스포(산청) 등을 개최할 예정

○ 도 축제·문화행사 연계 관광홍보 및 숨은 관광명소 발굴을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국내외 스마트 홍보,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관광박람회 경남홍보관·경남관광 로드 캠페인 등 현장 마케팅으로 다각적 홍보 등을 실시

* 지원자들이 여행비를 지원받고 최대 30일간 경남을 여행하며 경남관광지를 홍보하는 장기체류형 여행프로젝트로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22년에 전 시군으로 시행을 확대

<참고3>

고속철도의 관광업에 대한 영향 추정

□ 고속철도의 관광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개통이 관광업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추정

○ 이중차분법은 특정 처치(treatment)에 의한 효과와 다른 변수에 의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대조집단(control group)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여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며 처치 효과를 추정

— 본 분석에서는 고속철도역이 생긴 지역과 고속철도역이 생기지 않은 지역의 고속철도 개통 전후 관광업 관련 변수에 대한 효과의 차이를 추정하여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을 파악

□ 관광지와 연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는 전라선 KTX(2011년 개통)와 강릉선 KTX(2017년 개통)의 관광업에 대한 효과를 아래 모형으로 각각 분석하며 전국의 시군구 단위 기초자료(2010~2021년)에 Albalate et al.(2015)과 Jou & Chen(2020)의 방법론을 적용

○ 각 변수들은 전국의 시군구(서울, 제주 제외) 단위로 집계된 연단위 기초자료(2010~2021년 자료. 종속변수에 따라 데이터 존재연도 상이*)를 사용

$$\ln Y_i = \alpha + \beta_1 KTX_i + \beta_2 T_i + \delta(KTX_i \times T_i) + \gamma X_i + \epsilon_i$$

$\ln Y_i$ = 각 시군구의 연중(말) (1) 관광업 지역내총생산, (2) 관광업체 종사자수, (3) 관광지 평균 입장객 수

KTX_i = 각 시군구의 고속철도(전라선 또는 강릉선) 개통 더미변수

T_i = 각 관측치의 개통연도 더미변수

$(KTX_i \times T_i)$ = KTX_i 와 T_i 의 상호작용항(동 항의 계수가 고속철도의 효과)

X_i = 기타 통제변수(인구, 면적, 고속철도역 더미, 지역더미)

□ 추정 결과, 전라선 KTX 개통은 관광업 종사자 수(8.5% 증가)와 관광지 입장객 수(39.5% 증가), 강릉선 KTX 개통은 관광지 입장객 수(35.5%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고속철도의 개통시기 이후 관광업의 지역내 총생산은 증가(개통시기 회귀계수)하였으나 고속철도의 개통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광업 종사자 수도 개통시기 이후 증가하였으나 전라선 KTX의 개통 효과만 유의함

고속철도가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¹⁾²⁾

	전라선			강릉선		
	지역내 총생산 ³⁾	종사자수	입장객수	지역내 총생산 ³⁾	종사자수	입장객수
고속철도 개통효과	0.028 (0.042)	0.085*** (0.017)	0.395** (0.146)	0.006 (0.006)	0.011 (0.018)	0.355*** (0.035)
개통지역	0.110 (0.074)	0.154** (0.060)	0.100 (0.173)	0.010 (0.091)	0.040 (0.038)	-0.073 (0.201)
개통시기	0.088*** (0.024)	0.101*** (0.005)	-0.398*** (0.107)	0.050*** (0.008)	0.086*** (0.004)	-0.256*** (0.034)
관측치수	1,407	1,397	1,288	1,005	1,005	1,289
R ²	0.835	0.916	0.206	0.826	0.917	0.224

주: 1) 종속변수들은 로그변환됨
 2) ()는 표준오차(지역 단위의 군집표준오차)
 3)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4)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

경상남도(2022),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김상태(2011),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 서울연구원

부산광역시(2022),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컨슈머인사이트(2022a), 2017~2021 국내여행 숙박 특성 조사

" (2022b), 여행행태 및 계획 주례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2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한국관광공사(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1년 관광 트렌드 분석

" (2021a),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관광 트렌드 분석

" (2021b),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남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 (2022), 빅데이터 기반 전국 기초지자체별 관광유형 분석

한국산업단지공단(2016), 산업관광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기획연구 2016-05

BNK금융경영연구소(2020),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BNK경제인사이트 2020-02

고계성(2018), 온천과 연계된 지역 관광특구 재생 방안 고찰, 인문논총 vol.46

Albalade et al.(2015), *Tourism and high speed rail in Spain: Does the AVE increase local visitors?*, IREA Working Paper 2015/27

Jou·Chen(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peed Rail and Tourism*, sustainability 12, no.12: 5103.

경상남도 <https://www.gyeongnam.go.kr>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국립공원공단 <https://www.fipa.or.kr>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

세계관광기구 <https://www.unwto.or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heritage.unesco.or.kr>

통계청 <https://kosis.kr>

한국관광공사 <https://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한국교통연구원 <https://www.koti.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s://www.kicox.or.kr>

한국호텔업협회 <http://www.hotelskorea.or.kr>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